

# 마법학원 RPG 하베스트



극장판 제 6편

## 추억 속의 진주별

~Unraveled Asterism~

[시나리오 원문](#)

### 개요

시나리오 : [추억 속의 진주별 ~Unraveled Asterism~]

권장인원 : 3명

추정 시간 : 5~6시간

권장 리버럴 아츠 : 포스, 렉스, 브링거, 오퍼레이트 슬라임, 익스플로드

누군가가 한 생각이 봄바람에 실리고, 여름 발소리에 닿아, 단풍처럼 색을 바꾸고 눈처럼 쌓여간다.

유별난 것은 계절 뿐 만이 아니었다.

언제나 "괜찮아"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네가 너인 걸 기억하는 내일이 올 때까지.

주워 모은 별의 부스러기가 너의 내일을 비추고 있으니까.

마법학원 RPG 하베스트 Theatrical Edition

[추억 속의 진주별 ~Unraveled Asterism~]

마법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아.

PC 1	커넥션	스피카	추천 관계	연인 / 호의
<p>당신은 마법학원 하베스트의 학생이다.          당신이 하베스트에 입학했을 때, 스피카라는 소년을 만났다.          건강하고 밝은 그와 함께하는 학교 생활은 알찼다.          당신은 그에게 신기할 정도로 끌려서, 결국 그와 연인이 된다.          하지만 며칠 뒤, 당신이 깨어나 하베스트를 갔을 때엔 스피카를 알 만한 모든 사람이 스피카를 기억하지 못했다.</p>				

PC 2	커넥션	아쿠츠 사라	추천 관계	연인 / 후배
<p>당신은 마법학원 하베스트의 학생이다.          당신은 최근 마도 차원에 온 지 얼마 안 된 아쿠츠 사라 라는 친구가 있다.          어느 날, 당신은 그에게 불려지는가 싶더니 돌연, 그로부터 사랑 고백을 받았다.          당신은 그것을 받고 애인으로서 사귀게 되지만, 어느 날, 당신은 친구에게서 그의 나쁜 소문을 듣게 된다.</p>				

PC 3	커넥션	도로시 프롬 오즈	추천 관계	자유
<p>당신은 마법학원 하베스트의 학생이다.          당신은 어느 날 도로시에게 불려가더니 어떤 사건의 해결을 의뢰받는다.          그것은 전설의 8대 마법사로 유명한 [루이즈 마거릿] 의 시 한 편이 도둑맞은 사건이었다.          도로시의 말에 따르면, 사건 해결을 위해 루이즈가 학생을 파견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당신은 도로시의 부탁을 거절하지도 못하고 사건 해결에 나서게 되었다.</p>				

- **시나리오 인포메이션** (다음 용어에 대해 알아두면 시나리오가 더욱 재미있어집니다.)

- **패러렐 링커 에 대하여**

특이점(패러렐 링커)은 시간적 혹은 공간적으로 다른 차원 공간에서 나타난 것이다. 다른 세계에서 마도 차원을 방문한 사람들은 가끔 차원적 특이성을 보일 때가 있다. 또, 어떠한 이유로 시공을 초월해 먼 과거나 미래로부터 마도 차원으로 나타난 사람에게도 동일한 특이성을 볼 수 있다. 이들과 같은 이차원에서의 방문자가 특이점(병렬 링커)이다.

- **데몬즈 타임에 대하여**

일곱 대죄의 조각이 사람의 손에 넘어가 사람의 의사를 지배하려 했을 때 반대로, [강한 사람의 의사]가 일곱 개의 대죄의 힘을 웃돌아 힘을 삼켜 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 때, 그 인간은 [데몬즈 타임] 이라는 대마법의 술식으로 악마의 힘을 다룰 수 있게 된다. [데몬즈 타임] 을 발동하면 그 인간은 반인반마와 같은 악마의 특징이 몸에 돌아난다.

## 오프닝 페이지

### 장면 1 행방불명 (마스터 장면)

한 대의 차가 숲 속을 달리고 있다.

고등학생 정도에, 검은머리 포니테일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학교 지정 운동복을 입은 소년이 뒷좌석에서 지루한 듯 경치를 바라본다.

"아빠, 이사 할 집은 언제 도착 해?"

"한 시간 정도 더 걸려."

"사라, 암전히 있으렴."

앞에 앉아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달래듯 말한다.

“어, 1시간이나 걸려? 너무 심심한데.”

소년은 다시 경치를 본다. 아무리 달려도 변치 않는 숲 속. 산 길을 차가 달려간다.

“... 뭐 재미있는 거 없나.”

그가 그렇게 중얼거리자 갑자기 차가 멈춘다.

"어...? 전에 왔을 땐 이런 터널 없었는데."

"잠깐, 길을 잃은 건 아니지?"

"아니, 그래도 외길이었지. 앞으로 나아가는 수 밖에 없나?"

"이런 섬뜩한 터널, 가고 싶지 않아. 잘못된 길 일 거야."

어머니와 아버지가 대화하고 있는 것을 소년은 멍하니 흘러 들으며 스마트폰을 바라본다.

“갈 만큼 가 보자. 최악으로 되돌아 갈 뿐 이야.”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고 차를 몰았다. 캄캄한 터널 속을 가다 어둠 너머 서서히 빛이 보인다.

“... 여기는 처음 보는데.”

터널을 빠져나오자 숲이 다시 펼쳐졌다.

“역시 길을 잘못 들었군. 돌아갈까?”

“잠깐만... 이거... 이, 이럴 때 기름이 끊겨?”

"아, 뭐 하는거야. 이런 산 속에서 조난 당하기 싫어."

“저기 저택이 있네. 도와달라 해 볼게.”

"나도 갈래. 사라는 어떻게 할 거니?"

나, 여기서 기다릴게.”

차 안에서 뒹굴며 만화책을 읽던 소년은 그렇게 대답한다.

부모님이 차를 나와 가까이 보이는 큰 저택으로 향한다. 쓸쓸한 느낌도 없이 사람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곧 돌아오겠지...

부모님이 차를 나간 지 한참 지난다. 한 시간 쯤 지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

미심쩍은 소년이 차 밖으로 나오자, 거기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뒷모습이 있다.

"어땠어?"

말을 걸지만 그들은 반응하지 않는다.

"아빠? 엄마?"

소년이 다가가자 부모의 모습은 점차 벌레 같은 모습으로 변해간다.

"...히, 히아아아악!!"

황급히 엉덩방아를 찧는 소년에게 부모님 이었던 것이 달려든다.

그때 소년의 눈 앞에 하늘에서 분홍색 머리의 소년이 내려온다.

소년은 고깔모자에 검은 로브, 그리고 큰 빗자루를 든 마녀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너. 이름은?"

"아...아...아쿠츠...사라..."

"애, 사라. 네 아버지랑 어머니, 내가 도와줄게."

## 장면 2 운명의 만남 (PC 1)

---

통학으로 하늘을 날고 있던 중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아, 미안해요! 비켜주세요!!"

PC 1이 뒤돌아보자, 빗자루를 타고 급하게 돌진 해 온 소년과 부딪히고 만다.

"아이고...아, 죄송합니다!"

"어... 너 혹시 PC 1?"

"나 스피카야. 기억 해?"

갈색 단발에 빨간 실크햇을 쓴 여자 아이. PC 1은 그를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어디선가 같은 상황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데자뷰가 엄습한다.

"...있지, 옛날에 같이 놀았던 스피카... 인데. 기억 안 나?"

"음... 어쩔 수 없네. 많이 어렸을 때 니까. 나는 기억 나는데."

"그건 그렇고, PC 1. 많이 컸네. 너무 잘생겨지고 있어. 옛날에는 그렇게 귀여웠는데."

"어라, 그러고 보니 혹시 PC 1도 하베스트에 입학 한 거야? 그럼 같은 학교구나."

"왠지 지금 이렇게 PC 1을 다시 보게 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어. 기뻐..."

"앞으로 잘 부탁 해. PC 1."

벚꽃나무를 배경으로 그는 웃는 얼굴로 PC 1을 보았다.

## 장면 3 그의 꿈 (PC 전원)

---

그리고 얼마 후, PC 1은 도로시 프롬 오즈의 마법 결투 파트너십 훈련 강의에 참가했다.

"네~. 모두 주목! 모두 아시다시피 모두의 히로인, 도로시아! 오늘부터 반년 간 잘 부탁해~!"

"그게~. 이 훈련에선 더블 배틀을 할 거야. 파트너와 제대로 콤비네이션이 되도록 평소 모두 친하게 지내자!"

"그럼 바로 페어를 만들까... PC 1이랑 스피카, 그리고 PC 2랑 PC 3. 둘이서페어야"

PC 1이 이름을 불리며 앞으로 나온다. PC 1의 옆에는 스피카라는 소년이 있다.

갈색 단발에 붉은 실크햇의 여성. 지난번 부딪힌 아이이다.

"아! PC 1. 오랜만이야~. PC 1도 이 수업 듣는구나?"

"우리 콤비래. 나, 전투 마법은 그다지 자신이 아닌데... PC 1은?"

"그러면 나 PC 1을 열심히 응원할게! PC 1은 탱킹을 해 주면 좋겠어..."

마법 결투는 PC 2, PC 3이 이긴 것으로 처리한다.

"...미안, PC 1. 나 때문에 져서..."

"오늘 수업을 통해서, 나, 목표가 생겼어."

"나, 언젠가 PC 1을 지킬 만큼 강해 질 거야."

"그 때까지 기다려 줘!"

그는 조금 분한 듯이 웃었다.

## 장면 4 둘이서 (PC 1)

---

PC 1은 저녁 때, 도서관에서 혼자 책을 정리하고 있는 스피카를 발견한다.  
대량의 책에 둘러싸여 그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 PC 1. 음... 헤헤헤. 미안해. 도와 줄 수... 괜찮을까?"  
"실은 도로시 학장님이 부탁해서 책 정리를 했는데, 그게 너무 오래 걸려서..."  
"도로시 학장님도 엄청 사과하면서 부탁하셔서 분명히 무슨 일이 있으리라 생각 해."  
"PC 1, 미안해. 같이 책 치우는 것 좀 도와주면 안 될까?"

PC 1은 스피카와 함께 책을 치우며 이야기를 했다.

"있지, PC 1은 꿈이 있어?"  
"난 말이야. 꿈 같은 건 전혀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방금 생각 난 거야. PC 1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강해지고 싶다고."  
"그러니까, 마법도 많이 공부하고... PC 1에게 지지 않을 정도로 강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책장에 발돋움하며 책을 넣으려는 스피카.  
자세가 흐트러져 PC 1 쪽에 기대는 형태로 넘어진다.

"으악! 아차... 미안해, PC 1... 아... 어..."  
"나, 나야말로... 미안해."

얼굴이 붉어지며 그렇게 말한다.

"마, 맞다, 그러고 보니... PC 1은 좋아하는 사람이라던가 없어?"  
"없구나... 다행이다... 어? 뭐? 아, 아무것도 아니야..."  
"나, 나는... 그...비밀이야."

거기에 도로시가 온다.

"우악, 미안해! PC 1, 스피카! 오늘 꼭 보고 싶은 생방송이 있었어."

스피카 쪽을 보자 그는 수줍은 듯 눈길을 돌린다.  
그러면서 도로시에게 들리지 않게, PC 1에게 귓속말을 한다.

"있지, 오늘 보단, 다음에 하면 안 될까?"  
"이번 일요일엔... 시간 있어?"

## 장면 5 분실물 (PC 2)

---

어느 날, PC 2가 불일을 보고 귀가한다. 완전히 어두워진 하베스트 도서관에서 사람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없네... 여기도... 어디 갔지?"

거기에는 검은 머리의 여자아이가 책장을 뒤지며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찾는 듯 했다.

"아... 죄, 죄송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얼굴은 눈물에 젖어 있었고 금방이라도 구겨질 것 같았다.

"저... 저, 소중한 책을 잃어버려서... 매우 소중한 물건이에요..."

"그게... 그게 없으면 저... 저는..."

그는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한다.

"여기 떨어트렸을 텐데, 누가 치운 건지 몰라서요."

"... 같이 찾아줄 수 있나요?"

"빨간 책 이에요. 제목은 [불의 여자] 에요. 제겐 무척 소중한 물건 이구요."

"...엄마, 아빠..."

그는 뚝뚝 눈물을 흘린다.

"...유품... 같은 거, 라서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책장을 뒤지기 시작한다.

PC 2도 함께 찾자,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의 여자] 라고 적힌 책을 찾을 수 있다.

"아... 이거... 이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저기!"

그가 얼굴을 붉히며 PC 2의 옷자락을 잡는다.

"그... 다음에 관찮으시다면... 사례 해 드려도 관찮을까요?"

"저는 사라. 사라라고 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PC 2는 그와 만나기로 약속한다.

## 장면 6 오래된 사이 (PC 3)

---

PC 3는 도로시 프롬 오즈에게 호출받는다. 언제나 있는 일 이다.

PC 3가 문 앞에 서면 뭔가 수상한 소리가 들려온다.

"앗... 으... 거, 거기는 안돼... 안 돼!"

PC 3가 들어서자 방 한가운데 자리 잡은 안마 의자에 도로시가 앉아 있다.

"앗, PC 3. 들어왔네... 앗, 미안. 조금만 기다려줘."

"어우우으으으으으으으으으..."

도로시는 느긋하게 안마 받고 있다

끝나면 그는 소파에 앉아 PC 3를 마주한다.

그의 손에는 거대한 버블티가 쥐어져 있는데, 도로시는 그것을 마음껏 먹는다.

"저기... PC 3. 우물우물."

"실은... 우물우물, 힘든 일이 있어서..."

"음, 그만 먹고 얘기해야 겠다. 사실은 절도사건이 있어."

"있지, PC 3은 8대 전설의 마법사 라는 거 알아?"

"옛날 옛적에 악마를 무섭게 물리친 8명의 마법사가 있었어."

"그 여덟 명이 소피아, 시빌라, 세츠나, 페이트, 루이즈, 클라우스 그리고 나와 아스타로트"

"그, 루이즈라는 애가 있는데. 내게 부탁을 한 거야."

"그, 최고급 마도서를 작성 할 수 있는 마도서 작가인데."

"그가 쓴 시의 마도서가 도둑맞았대."

"그래서 나한테 한가한 학생을 파견 해 달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다녀와."

"야아~, 부탁이야. PC 3. 관찮다면 루이즈네 집에 갔다 와 줄 수 있을까?"

## 장면 7 좋아해 (PC 1)

약속장소인 학원 근교의 거리의 시계탑으로 향한다.  
그러자 그곳에는 귀여운 프릴이 달린 옷을 입은 스피카가 있다.

"아...PC 1."  
"길게 기다리지 않았어. 후후. 너무 기대되다 보니, 빨리 와 버려서..."  
"아, 저...오늘은 잘 부탁해?"

그러면서 깊이 고개를 숙이는 스피카.

"어...오늘 나 이상하지 않아...?"  
"정말? 기쁘다."  
"있지. 오늘은 내가 친해지고 싶어서 부른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PC 1을 에스코트 할게!"  
"그럼 바로... PC 1은 단 것 좋아해? 저기, 엄청 맛있는 파르페를 먹을 수 있는 가게가 있는데 그런 곳 이라던가...  
어때?"  
"다행이야... 하지만 만약 힘들어도, 오늘은 많이 생각 해 왔으니까, 많이 즐겨줬으면 좋겠어."  
"게다가 그... 나도 너랑 함께 할 수 있어... 너무...기쁘고..."  
"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카페로 향한다. 인테리어는 깔끔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으며, 커플과 직원으로 가득하다.

"저기 말이야, 여기 이 파르페가 아주 맛있어!"

스피카는 메뉴를 얼굴 앞으로 가져와서 PC 1에게 보여준다.

"그, 괜찮으면... 같이 먹을래?"

스피카는 환한 얼굴이 되어 점원을 불러 주문을 한다. 싱글빙글하면서 PC 1를 본다.

"후훗, 하베스트 밖에서 너를 만나는 건 뭔가 신선하네..."  
"PC 1을 독차지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  
"있지, PC 1도 나를 독차지하고 있는 거 라구?"  
머리를 책상 위에 얹드려 멍한 느낌으로 그는 PC 1을 들여다본다.

"아, 왔나 봐. 와! 엄청 귀여워!"  
"같이 먹자!"

스피카는 파르페가 와서 흥이 오르는 게 보인다.

먹으면서 PC 1과 스피카는 학교나 일상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펫 샵에 가서 동물을 돌이켜 보거나, 우연히 하던 이벤트형 귀신의 집(물론 마법에 의한 연출이 대단하다.) 에 들어가 보거나, 오락실에서 놀아보거나.

저녁 때가 되었을 무렵. 해가 거의 졌을 정도의 시간.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 조금만 더 놀까?"  
"나, PC 1이랑 함께 타고 싶어."

조금 진지한 표정이 되면서 스피카는 천천히 움직이는 관람차를 가리킨다.

접수를 마치고 관람차를 타면 스피카는 PC 1이 앉은 반대편에 앉는다.

그리고 잠시의 침묵 속에 관람차는 움직이기 시작한다.

"있지, PC 1."

"오늘은 고맙다고 했는데, 내가 더 많이 즐겼어."  
"만약 괜찮다면 다음에도 제대로 보답 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  
"네가 좋아하는 것을 많이 가르쳐 줄 수 있어? 싫어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곳도..."  
"다 시간도 감정도 너랑... 공유하고 싶어"  
"그, 그래서 만약 괜찮다면... 다시 한 번. 다음에는 애인으로서... 데, 데이트 해 줄래?"  
"...나, PC 1을 좋아해."

PC 1의 대답을 듣고 나서, 스피카가 웃는 얼굴로 PC 1을 껴안는다.

## 장면 8 만들어 준 도시락 (PC 2)

---

하베스트에서 강의가 끝나고 점심시간. PC 2는 학원 안뜰 벤치에서 만나기로 했던 사 را를 만난다.

"아... 어... PC 2 님. 고생하셨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많이 기다리진 않았으니까."  
"그보다 죄송해요. 점심시간 제가 어울리게 되어서..."  
"아, 어, 오늘 말인데요... 그..."  
"어제의 답례인데... 드시겠어요?"

그는 가방에서 도시락 상자를 꺼내어 PC 2에게 내민다.

"아, 저기 PC 2씨는 점심식사로 도시락 싸 오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다, 다음에 가져 올게요...!"  
"아... 드셔 주실 거 예요? 감사해요."

그는 얼굴을 붉히고 고개를 숙이는데, 그러다 PC 2를 본다.  
둘이서 벤치에 앉아 도시락 상자를 연다.  
내용물은 가정적인 것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예쁘게 진열되어 있다.  
PC 2가 도시락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는 그것을 뚫어지게 쳐다본다.

"아, 저... 입엔... 맞으신가요?"  
"다행이다... 맛있단니까 기뻐요."  
"제가 요리에 자신이 있어서... 엄마 아빠한테 자주 칭찬받았어요."  
"제 엄마 아빠는... 지금은 그... 병을 앓고 있어요."  
"저 현실세계 출신 인데요. 엄마랑 아빠랑 이사할 곳을 향해 차로 가던 중 이상한 터널을 지나 이쪽 세계로 왔어요."  
"그 때, 엄마 아빠는 크리쳐한테 습격당해서..."  
"...죄, 죄송해요. 더 이상은..."  
"그보다, PC 2씨는 좋아하는 음식 있나요?"  
"그럼, 내일은 그걸 만들어도 될까요?"  
"기뻐요...♪"

그는 지금까지 지은 적이 없는 듯한 웃는 얼굴로 PC 2에게 미소를 짓는다.  
그런가 싶더니 이내 부끄러워하고 눈을 돌린다.

"아, 저... 아니, 괜찮으시다면..."  
"이, 이름으로... 불러도 될까요...?"  
"아... 어... PC 2..."  
"죄, 죄송해요! 어, 어색하네요! 아니에요! 없던 일로!"

PC 2는 그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 장면 9 루이즈 마거릿 (PC 3)

---

PC 3은 하베스트를 떠나 전철로 몇 정거장을 달려 루이즈 마거릿의 아틀리에로 향한다.  
루이즈 마거릿은 교과서에 실린 초상화로 보았을 때, 20대 후반의 여성으로 청초한 면모가 있다.  
자연 속에 눈에 띄게 신기한 모양의 목조 건물이 있다.  
언뜻 보기엔 교회 같은 구조로도 보인다.  
PC 3가 현관을 노크하자, “누구야?” 라고 작은 여자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 왔다.

“네~. 무슨 일이야?”  
조금 언짢은 듯 문을 연 것은 키 120cm 정도의 작은 소년이었다.

“난데?”  
“나, 내가 루이즈 마거릿이야.”  
“뭐야. 단지 모습을 고정하는 게 아냐. 도로시나 칸트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무슨 일 이니? 나 집필하느라 바쁘긴 한데.”  
“...아, 내가 도로시한테 부탁한 노예구나. 맞지?”  
“그럼 빨리 들어와. 저기 빈 곳에 앉아.”

소년은 담담하게 말을 내뱉는다. 마법으로 살פות이 흥차를 따르고, 과자가 들어간 티 스탠드를 준비한다. 그리고는 그것을 자기 앞에 놓고 호화로운 소파에 털썩 앉는다.

“아, 미안해요. 나 차분하게 말하고 싶을 때는 차를 마셔야 해서.”  
“바로 본론에 들어가는데 괜찮을까?”  
“그리고 보니, 이름을 아직 못 들었네. 빨리 이름을 대.”  
“음, 재미없는 이름이네. 머슴이라고 불러도 되지?”  
“농담이 당연하지. PC 3.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만 이건 명령이야.  
“내 작업실에 있던 마도서가 도둑맞았어”  
“제목은 [불의 여자] 야. 빨간색 시집.”  
“그걸 되찾아 줘.”  
“빨리 되찾지 않으면 안 되거든...”  
“책에는 특수한 마법이 걸려 있어. 사람의 기억을 다시 쓸 수 있지.”  
“이런 마도서가 나쁜 마법사의 손에 넘어가 버리면 한순간에 악용되고 말아.”  
“나 몰라? 나는 프로 마도서 작가야. 내가 쓰는 마법서는 저절로 그렇게 돼.”  
“요즘 시중에 소문 난 컬렉션 같은 거야. 현대의 마법학으로는 해명할 수 없지. 그래서 나는 8대 전설의 마법사인 거야.”  
“어쨌든, 사람의 기억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마도서는 봉인해야 마땅한 물건인데...”  
“왜 인진 모르지만, 그 봉인이 억지로 뜯겨 있었어. 내가 봉인 한 거라서, 어지간한 일반인은 못 풀 텐데.”  
“글쎄... 부술 만한 건... 나 같은 8대 마법사나 일곱 대죄... 그런 수준의 마법사야.”  
“뭐. 그런 고로 빨리 되찾아 와.”  
“일곱의 대죄라고 해도 지금은 어차피 봉인된 파편의 잔류 사념일 뿐 이야. 너 같은 학생이라도 뭉치면 아슬아슬하게 할 수 있잖아.”  
“뭐, 최악의 경우로 네가 사건에 휘말려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도와줄게.”  
“그럼 처음에 말한 대로 나는 새 작품을 쓰느라 바빠서, 이만.”

그렇게 말하고 그는 책상에 앉아 집필을 시작해 버린다.

## 장면 10 스피카 (PC 전원)

---

어느 날 PC 1이 깨어나면 머리에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어제의 기억이 전혀 없다.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PC 1가 기억하는 것은 그저께의 수업내용, 스피카와의 데이트... 그 이전의 일은 모두 기억난다.  
PC 1는 어쨌든 하베스트에 가서 평소처럼 수업을 듣고자 했다.  
오늘의 첫 수업은 도로시 프롬 오즈의 마법결투 파트너쉽 훈련 강이다.

“안녕~. 모두들 안녕! 오늘 하루도 잘 하자!”

"그럼 바로 언제나의 페어로 나눠자!"

그 때, PC 1은 이변을 알아차린다. 항상 스피카와 함께 참여하는 강의임에도 스피카가 없다. 그걸 의문스러워 하는 네 옆에 한 소년이 선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PC 1 님.”

PC 2의 눈 앞에 본 적이 없는 검은 머리에 검은 뿔테 안경 소년이 서 있다. PC 2, PC 3의 기억 속에서. 장면 1, PC 1와의 페어는 [사라] 이다.

"저 예요. 사라. PC 1 님... 무슨 일 이에요?"

"스피카 라니... 누구예요?"

PC 1이 당황하고 있으면, 거기에 도로시가 온다.

“무슨 일이야? PC 1. 왠지 안색이 안 좋은데?”

“학장에게 무슨 일이던 상의 하라구? 나라면 학생의 어떤 고민이라도 해결 해 줄 수 있어!”

"...스피카? 누군데?"

“아, 어? 하지만 나 전교생의 이름은 기억 해. 자신 있거든. 그 스피카라는 애, 하베스트 학생은 아닌데?”

PC 1 말고는 그 누구도 스피카를 기억하지 않았다.

## 장면 11 고백 (PC 2)

---

하베스트에서 인기척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저녁 무렵. PC 2는 사라에게 불러 교사 뒤편에 와 있었다.

"아...저... 가, 갑자기 불러내서 죄송해요."

"그게, 꼭 PC 2씨에게 전할 말이 있어서요..."

"저... 저..."

"아, 음... 그,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릴 것 같아요..."

그는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PC 2를 바라본다.

“저, PC 2를 좋아해요. PC 2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만지고 싶어요. 많이 나를 생각 해 줬으면 좋겠어요. PC 2 씨를... 독차지 하고 싶어요.”

"후우...말할 수 있었는데, 헤헤... 썩스러워서 얼굴을 볼 수가 없네요..."

그렇게 사라는 얼굴을 가리듯 본인의 양 손을 잡는다.

"저어... 저로는...안 되나요...?"

“아... 정말요? 기뻐요...!”

사라가 갑자기 PC 2를 꼭 껴안는다.

"저...이 다음엔...어떻게 할까요...?"

"헤헤... 잠시만 이대로 있게 해 주세요..."

## 장면 12 범인 (PC 3)

---

PC 3은 하베스트 안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지만, [불의 여자] 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PC 3이 하베스트에서 황혼을 보고 있으면 갑자기 뒤에서 등을 떠밀린다.

"뭐 하나.내가 너에게 부탁 한 거라고? 열심히 일 해."

"아니면 정말 하인이라고 불리고 싶어?"

"바빴는데 그 자식이 불렀어."

하베스트의 성처럼 되어 있는 건물의 맨 위쪽에 확장실을 가리킨다.

"자, 난 간다. PC 3. 대체로 이야기 내용은 예상할 수 있으니까 너도 오는 게 좋아. 자, 어서."

도로시의 방 앞에 도착하자 그는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연다.

그러자 그곳엔 담요를 한껏 두르고 있는 도로시가 있었다.

"봐! 괴인 블랭킷! 애니메이션 에서 봤어! 요즘 유행이래!!"

"하아... 오랜만 이지만 여전히네, 도로시."

"루이즈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쿨하고 독설가네."

"입 다물어. 그것보다 본론으로 들어 갈게. 하인도 데려왔으니까."

"아, PC 3. 여기 앉아."

담요를 두른 채 꿈틀거리는 도로시.

어디서 났는지 애프터는 티 준비를 시작하는 루이즈.

"슬슬 나왔지?"

"나왔다구... 마이타 나호 선생님의 차오 코믹스! [12살.] 의 최신권!! 기대되지!!"

"..."

루이즈는 흥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 없이 도로시를 노려본다.

"...오, 미안."

"농담할 여유가 있다면 괜찮아 보이네. 나 돌아갈게."

"잠깐만! 루이즈가 말한 대로니까! 정말로 나오고 있어."

"...요즘 교내에서 일곱의 대죄가 내는 낄새를 느껴. 아마 이건..."

"아스모데우스"

"오, 루이즈. 어떻게 알았어?"

"내 작업실 침입 경로, 봉인 해제 방법, 사용된 마나의 잔재들 때문이야.대죄 놈들은 너무 개성적이어서 그럴 듯 하지."

"PC 3은 아스모데우스 알아?"

"아스모데우스. 일곱의 대죄 중 색욕을 관장하는 악마야. 생물의 정신을 바꾸는 능력을 갖고 있지. 그리고 마계대전 이후 도로시의 몸을 빼앗는 데에 집착하고 있어."

"정말 기분 나빠... 사라졌으면 좋겠어..."

도로시가 담요 속에 숨는다.

"그렇다고 아스모데우스가 도로시의 몸을 빼앗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네게는 별빛 날개가 있으니까. 그 날개가 있으면 모든 마법, 물리공격, 정신공격이 안 듣잖아?"

"그건 그렇지만 ...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걸... PC 3. 나 잘 지켜줘야 해...?"

"PC 3, 아무튼 아스모데우스가 하베스트에 얽혀 있는 건 틀림없어. 평소 이상으로 달라진 점이나 커스 사건에는 주의 해. 그러면 분명 내 책도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 장면 13 환영 (PC 1)

PC 1은 혼자 돌아가는 길을 걷고 있었다.

그 이후로 PC 1은 스피카를 아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PC 1 .PC 1."

PC 1은 스피카 목소리를 듣는다.

"나 여기 있어.여기에..."

"여기 있으니까, 나 잊지 마..."

그러며 조금씩 PC 1의 눈 앞에 스피카의 모습이 희미하게 떠오른다.

"보고 싶어... 보고 싶어. PC 1..."

스피카에게 말을 걸자 문득 눈앞에 있는 것이 스피카가 아니라 [사라] 라는 것을 알게 된다.

"...네? PC 1 님. 무슨 일 이세요?"

"방금 저 보고 스피카라고..."

"참, 아까도 스피카라고 하셨죠? 누구예요?"

스피카의 모습은 PC 1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 장면 14 소문 (PC 2)

---

PC 2는 강의 시작까지 친구와 잡담을 했다.

거기에 같은 학과의 아는. 곧잘 장난을 잘 치는 아이가 말을 걸어 온다.

"야, PC 2. 들었는데."

"너 사라랑 사귀다는 게 정말이야?"

"진짜? 요즘 친하다고 소문이 자자하길래. 역시 사귀나 보네."

"하지만 널 위해 말해두는데. 솔직히 귀가 아플지도 모르지만 잘 들어라. 사라랑은 그만 만나.

개, 다른 애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 양다리 말야, 양다리."

"게다가 꽤 여러 남자한테 말을 건다거나... 곧잘 집으로 데려간다던가... 뭐어, 확실히 미소년 이니까. 누구라도 그 마음이 들겠지."

"어디까지나 소문이니까. 어디까지 믿을지는 너 나름이야."

"만약 신경이 쓰인다면 본인에게 물어 보면 되지 않을까. 사라한테는 못 들겠지만."

"사라 남자친구. OO학과 PC 1이라고 들었어."

그러면 PC 2의 친구도 거기에 덧붙이듯이 말 한다.

"아, 확실히 같은 수업에서 본 적 있어. 페어였지. 야야, PC 2. 괜찮아? 개한테 놀아나고 있는 거 아냐?"

## 장면 15 수상한 사건 (PC 3)

---

PC 3은 커스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임마누엘 칸트에게 왔다.

"좋은 날이구나. 자, 앉으렴."

"그래서 학장님께 말은 들었는데... 루이즈 씨의 책이 도둑맞았다면서?"

"자세히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런?"

"...흠. 그렇구나. 조금만 기다려 주렴."

칸트 교수님은 컴퓨터를 만지고, 마법으로 인쇄하기 시작한다.

"요 며칠 동안의 커스 감염에 관한 피해자 리스트 란다."

"이 중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아, 여기구나. 비슷한 사건이 연발하고 있단다. 아직 조사 중이며 해결되진 않았어."

“공통점으로서, 감염자는 모두 2차 감염자라는 것이구나. 1차 감염자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크리쳐의 특정까지 갈 수 없어. 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어.”  
“그리고 감염자 누구나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있더구나.”  
“외는 이름은 사람마다 다르고 감염자 근처에는 그런 이름의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조사도 매우 난항을 겪고 있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사가 가장 부진한 이유가 있단다.”  
“그 리스트를 보면서 뭔가 눈치채지 못할까?”  
“자세히 보면, 리스트 속의 감염자의 이름과 보고자의 이름 중 같은 것이 있단다.”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인간들이 조금씩 감염되고 있지.”  
“여기에는 어떤 실력자의 의도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학장님과 루이즈 씨의 말대로 아마 일곱의 대죄겠지.”  
“이쯤 되면 솔직히 막다른 골목에 가까운 어려운 사례란다. 단서 자체는 있는데...”  
“네가 이곳에 왔다는 것은 이 사건을 조사하려 했다는 것 이겠지. 허나 아까도 말했듯이 이 사건은 매우 난해하고 조사자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단다. 그럼에도 이 사건을 알아보겠다는 각오가 네게 있니?”  
“그래, 그렇다면 단 한 가지 네게 알려주마.”  
“...이 소년 이란다.”

칸트로부터 제시된 것은 아쿠츠 사라의 사진이다.

“조사자를 포함 해, 감염된 사람이 모두 그와 접촉하고 있단다.”  
“그것도 대부분 연인관계에 있었던 것 같구나.”  
“부디 조심하고, 그에 대해 알아보렴. 만약 너 까지 감염되면 그때엔 내가 간다.”

## 장면 16 수라장 (PC 전원)

PC 전원은 도로시 프롬 오즈의 마법결투 파트너십 훈련 강의에 참가하고 있었다.

“자~. 오늘은 하베스트가 아니라 검은 숲에서 탐색도 겸한 훈련을 할 거야. 2인 1조로 자유롭게 행동해도 돼! 만약 크리쳐에게 습격당할 것 같으면 둘의 콤비네이션으로 격퇴 하도록! 그럼, 우선은 퍼져서 준비체조 부터~.”

여전히 PC 1의 콤비는 사라 다.

“아, PC 1 님. 준비체조 해요.”  
“무슨 일 이세요? 제 얼굴에 뭐 묻었나요?”  
“그것보다 준비체조 해야죠. 제 등을 눌러주세요.”  
“앗...아파요... 좀 살살 해 주세요...”

PC 2가 얽히고 싶다면 가도 좋다. 다만, 그곳에 가기 전에 한 남학생이 PC 1을 찾아간다.

“야, PC 1 너 말이야... 사라랑 사귀는 거잖아? 진짜야?”  
“거짓말 하지 마. 너랑 사라가 사이좋게 데이트 하는 거 봤거든.”  
“어차피 네가 사라를 억지로 꼬셨지? 남의 여자친구를 건드리다니. 최악이네, 너.”

그러면 다른 남자가 그리로 온다.

“잠깐만 기다려. 사라 씨는 나랑 사귀고 있거든. 그지, 사라 씨!”  
“무슨 말을! 사라는 내 애인이다.”  
“어휴... 너희들 꼴불견이다. 자, 사라야, 이리 와.”

사라는 남자들 쪽을 돌아보며 말한다.

“...죄송합니다. 저, 여러분의 호의가 기뻐서... 거절할 수 없다 보니... 하지만, 여기서 확실히 말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 딱 한 명뿐이에요.”

사라는 힐끗 PC 1을 본다.

"그쵸, PC 1 님.가요."

"그런...나랑은 불장난 이었어? 사라..."

라고 무너져 내리는 남자들을 결눈질로, PC 1은 사라에게 반 억지로 끌려간다.

PC 1과 사라는 조금 떨어진 숲속으로 간다. 다른 PC는 따라와도 된다.

"...휴, 죄송해요."

"여러분, 저를 좋아한다고 말해줘서 기쁘지만... 저 사권다고 한 적 없어요..."

"아, 제가 좋아하는 건 PC 1 씨가 아니에요. 안심 해 주세요. 그냥 저 자리를 뜨고 싶어서..."

"그리고, PC 1 씨가 좋아하는 사람은 스피카 씨죠?"

"저, 사실 PC 1 선배님이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착하고, 멋있고... 페어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솔직히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스피카는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금방 알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왠지 반짝반짝 빛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피카 씨를 아껴주세요. 멋진 PC 1씨 라면 잘 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라의 배후에 늑대형 크리쳐, 웨어울프가 갑자기 나타난다.

"까아아악! 나... 난... 싫어... ! 오지 마! 오지 마!!!"

PC 1이 구하려고 하기 직전, PC 1과 사라 사이를 헤치고 들어가듯 또 다른 웨어울프가 날아든다.

"싫어... 싫어! 오지 마! 무서워... 오지 마아아아아아!!!"

심상치 않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외치는 사라. PC 2는 사라를 돕는 롤플레이를 해도 된다.

"...PC 2..."

## <중간 전투:웨어 울프x2>

웨어울프를 쓰러뜨린 PC 2에 갑자기 사라가 매달린다.

"...아...하아...하...하...도, 도와줘서...고마워요..."

"아, 음... 아니에요. 미안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사라는 PC 2를 바라본다.

"깜짝 놀라 허리를 빼끗 해서요. 전 크리쳐가 무서워요. 만약 괜찮다면, PC 2씨도, PC 3씨도 우리와 함께 가 주지 않겠나요? 세상에... 헤헤헤."

## 장면 17 정보 수집 (PC 전원)

---

### 정보 1 : 스피카에 대하여

---

스피카 라는 학생은 하베스트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그러기는 커녕, 스피카라는 인간이 이 세상에 살고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PC 1은 현재 스피카에 대한 환청이나 환시를 보는 때가 많아지고 있다. (그것은 사라와 겹친 것으로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 정보 2 : 아쿠츠 사라에 대하여

---

미소년. 하베스트 소속인데다 사라와 사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남학생이 최근 몇개월 사이에 매우 증가하고 있다. 특히 커스 사건 감염자들은 모두 사라와 사귀고 있었다고 주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웬일인지, 사라와 사귀었다고 말하던 남자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자신이 사라와 사귀고 있었다는 기억을 잊고 있다. 또, 사라는 당분간 하베스트에 등교하지 않게 되었다.

### 정보 3 : 커스 사건에 대하여

---

감염자가 외치는 이름의 인간은 감염자 주위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 하베스트 안에 동성동명의 학생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 남성이 감염되어 있으며, 여성에게 자주 있는 이름을 부르고 있다. 감염자 거의 전원이 아쿠츠 사라와 연인 관계에 있었다고 증언되고 있으며, 그들은 그가 살고 있다는 '저택'에 끌린 후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 또, 이 커스 사건에서 검출된 커스는 아스모데우스의 커스로 판명되었다.

### 정보 4 : 아스모데우스에 대하여

---

일곱의 대죄 중 한 명, 색욕을 관장하는 악마. 일곱의 대죄는 도로시에 의해 봉인된 조각으로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릇이 되는 생물을 찾는 경우가 많다.아스모데우스는 강대한 마력을 지닌 도로시에 집착하며 그의 몸을 얻는데 목적이 있다. 또, 아스모데우스의 커스는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고 싶다] 는 것이다.

## 장면 18 분홍색 그림자 (PC 전원)

---

사라의 저택은 검은 숲의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 있다고 한다. 그곳으로 향하고자 하면 PC 전원은 하늘에 떠 있는 큰 자루를 탄 고깔모자에 검은 로브 소년. 도로시 프롬 오즈를 본다.

“어, 애들아. 무슨 일이야?”

“사라네 집? 아, 나 아니까 길 안내 해 줄게!”

"근데 뭐 하러 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지만 이제 안심 되겠네! 왜냐니, 나도 따라가니까. 설령 어떤 크리쳐가 나와도 강적 따윈 없어~.”

PC 전원은 도로시와 함께 가게된다.

## 장면 19 쿨드 삭 : 검은 숲 (PC 전원)

---

### 1. 어둠의 식물

해제방법 : 렉스, 포스, 익스플로드

페널티 : 5점 데미지

### 2. 숲 화재

해제방법 : 오퍼레이트 슬라임

페널티 : [배드 스테이터스 : 화상] 레벨5

### 3. 집중호우

해제방법 : 포스, 브링거, 오퍼레이트 슬라임

페널티 : [배드 스테이터스 : 쇠약] 레벨2

## 장면 20 스피카의 빛 (PC 전원)

---

PC 전원이 저택을 향해 걷고 있으면 PC 1에게 스피카의 목소리가 들린다.

“여기... 여기야! PC 1... 만나고 싶어...만지고 싶어...느끼고 싶어...!”

"나를...내 이름을...불러 줘..."

스피카의 이름을 부르면 PC1의 눈 앞에 스피카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난다.

그 모습은 PC 2에게도, PC 3에게도 분명히 보인다.  
PC 1이 스피카를 만지려고 하면, 스피카의 모습은 빛 알갱이처럼 사라져 버린다.

"...방금 건 뭐야?"

도로시가 그렇게 중얼거린다.

## 클라이맥스 페이지

---

### 장면 21 사라의 진실 (PC 전원)

---

PC 전원은 사라의 저택에 도착한다. 그러자 그 집 안에서 사라가 나타난다.

“어? 무슨 일 이에요? 여러분...”

"...저 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라도 있나요?"

"...아니, 사라. 실은 말이야.”

"애네들 아무래도 너무 끼어든 것 같아."

도로시가 동실동실 떠 오르며 사라 쪽으로 날아간다.

"그러니까 지워버려. 기억 말야."

"...네. 분부대로."

사라는 갑자기 품에서 책을 꺼낸다. [불의 여자]라고 쓰여진 빨간 책 이다.

“안심해. 모든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PC 1. 너는 스피카와 행복해 져야 하니까 말야."

“자, 빨리 지워 버려. 사라♪”

“...”

사라가 입을 연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무슨 일 이야? 사라? 설마...”

도로시가 말을 하려는데, PC 전원의 뒤에서 또 다른 도로시 프롬 오즈가 나타난다.

“...내 학생에게 뭐하는 거야. 아스모데우스!!”

도로시는 떨리는 몸을 억누르며 평소 듣지 못했던 목소리로 외친다.

“아하♪ 들켜버렸네.”

그러자 도로시의 모습을 하고 있던 소년이 고깔 모자를 벗어던졌다.

“애들아, 저건 내가 아니야! 내 모습을 한 일곱의 대죄. 아스모데우스 야.”

"뭐 됐어, 어차피 기억은 지울 거고"

"야, 사라. 빨리!"

“...”

사라는 몸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사라. 아빠랑 엄마. 죽여버린다?"

아스모데우스가 그렇게 말하자 사라는 입을 연다.

"...싫어...싫어 싫어!! 엄마도 아빠도 내가 구할거야!!"

"네 말 잘 들을게! 그러니까!"

"그럼 빨리 그 시를 읽고 그들의 기억을 지워."

"...할 수 없어... 왜,왜지? 왜... 왜!! 어째서!!"

눈물을 흘리며 외치는 사라.

"... 재 커스에 감염됐어. 몸에서 커스가 쏟아지고 있어."

"왜 그래? ...역시 사라, 발병 해 버렸? 아하하하!"

"누군가를 정말로 좋아하게 된 거야? 사랑도 할 줄 모르는 너였기에 지금까지 내 커스가 감염되어도 발병은 안 했는데."

"뭐가 목적이야... 아스모데우스!"

"그야 뻔하잖아. 도로시... 나는 당신을 원해."

"그 때문에 사라는 이용 해 지금까지 내 소중한 그릇을 키우는 중 이야. 다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하며 아스모데우스는 힐끗 PC 1 쪽을 보더니 다가가간다.

"안돼!! 도망쳐!!"

사라가 소리치자 거의 동시에 도로시가 외친다.

“[아스타리스크]!”

PC 전원과 사라는 마법진을 통해 어디론가 전송되었다.

“아잉, 놓쳤네. 두려움으로 머리가 가득할텐데... 내 앞에서 저런 마법을 쓸 수 있구나. 도로시.”

## 장면 22 스피카의 진실

---

도로시와 PC 전원, 사라는 교회 같은 곳으로 날아갔다.

“미... 미안해, 무서워서 마법을 잘 제어할 수가 없어. 그렇게 멀리 날지 못할지도... 그놈의 목적도 모르겠고... 이제 어떡하지?”

“제가 다 말 할게요.”

사라가 PC 전원을 향해 말한다.

"저는 현실세계에서 마도 차원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때, 엄마랑 아빠가 크리쳐의 마법에 따라 벌레가 되었어요. 거기에 아스모데우스가 나타나 엄마랑 아빠를 돕고 싶으면 자신에게 협력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필사적으로 그 자에게 협력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목적은 도로시, 당신 신체의 지배예요."

"단, 그 사람... 아스모데우스는 말했어요. 당신의 정신은 어떤 마법으로도 외부에서 조작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생각났나 봐요. 도로시의 정신을 안쪽에서 지배하는 방법을..."

"패러렐 링커라는 걸 알고 있나요? 극히 희귀하게만 나타나는데. 어떤 차원과 다른 차원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존재예요. 예를 들어서, 게이트를 통하지 않고 현실세계와 마도차원을 오가거나. 제4차원으로 불리는 다른 세계와 왕래한다던가..."

"그는 그 작용을 주목했어요. 정신 속을 세계라고 정의한다면 사람의 정신세계와 현실세계를 오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구요."

"그래서 그는 정신세계에 가공의 인격을 만들고 그것을 자신의 커스로 실체화하는 것을 생각해 냈어요."

"그 중 하나가 스피카 예요. 그리고 스피카는... 유일한 성공 사례죠."

"나는 하베스트에서 사람들과 연애하는 것을 반복했어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 나와 사귀었던 기억을 모두 가공의 존재, 그 사람의 이상상과 사귀었던 기억으로 바꿔 쓰는 겁니다."

"당신의 경우는 스피카가 그것이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당신은 기억을 고쳐 쓴 뒤 당신의 이상인 스피카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커스에 감염되어 발병하고 있어요."

"그 커스가 지금, 당신의 정신 세계에 있는 스피카를 처음에는 환각으로서... 하지만 지금은 확실히 실체로서 이 세계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스피카는 정신세계에도 현실세계에도 존재하는 인격. 즉 패러렐 링커로 각성해요."

"그리고 그 스피카를 아스모데우스가 그릇으로 빼앗음으로써 스피카가 가진 패러렐 링커의 힘으로 도로시의 정신에 안쪽에서 침입 한 뒤, 안에서 정신을 지배한다. 그것이 아스모데우스의 목적 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연애를 반복하면서... 여러 가공 인격을 만들고자 했어요... 불편함이 있을 때엔 이 책으로 기억을 지워버리고..."

"...하지만 지금의 저는... 커스가 발병하고 말았어요."

사라가 PC 2 쪽으로 돌아선다.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커스 때문에 엄마나 아빠보다 당신을 우선으로... 정말 싫은데. 엄마도, 아빠도 도와드리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왜 당신을..."

"왜, 왜 나는 당신의 기억을 지우지 못했지..."

"당신도 마찬가지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된 기억만 남기고 나를 잊어버릴 건데. 그냥 그 뿐인데...!"

"왜...왜 이렇게 힘들지... 힘들어... 도와줘... PC 2..."

PC들이 대화를 하고 난 뒤.

갑자기 교회 스테인드글라스가 깨지고 도로시 차림의 아스모데우스가 내려온다.

"PC 1도 사라도... 내 커스에 감염됐단 말이지? 어디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

"자, PC 1. 당신 안에 있는 스피카를 내게 줘."

그러며 아스모데우스가 단번에 PC 1 안으로 들어간다.

## 장면 23 허구가 사라질 때 (PC 전원)

---

PC 1은 하얀 공간에 있다.

눈앞에는 스피카가 있다.

"PC 1..."

"...미안해. 나를 좋아할 수는 없지."

"나는 결국 존재하지 않는 존재. 단지 허구일 뿐이니까..."

"실망했지..."

울듯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면서 PC 1에게 미소를 짓는 스피카.

"...왜?"

"어째서, 왜... 이런 나라도 좋아 해 줄 수 있어?"

"나, PC 1를... 좋아해도 돼?"

"좋아해도..."

"PC 1 널... 더..."

"알고 싶어... 만지고 싶어... 느끼고 싶어..."

"나는... PC 1이 좋아..."

"많이 좋아해..."

그런 그의 몸에 아스모데우스가 뒤에서 마법으로 된 검을 찔러 넣는다.

"...어...PC 1..."  
"유감이지만, 당신은 행복할 수 없어."  
"원래 넌 나를 위해 만들어졌거든."  
"잘 가~. 스피카, 안녕~."

스피카의 몸은 빛의 알갱이가 되어 하늘로 사라진다.

"PC 1... 나를 좋아해줘서... 고마워..."  
"네가 있어서... 나... 나는..."

## 장면 24 그 때 태어난 설레임 (PC 전원)

---

눈부신 빛이 잦아들자, 아스모데우스는 PC 1 옆에 스피카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

"아하하, 해냈다! 드디어 완성됐어. 이게 패러렐 링커의 그릇인가?"  
"자, 도로시. 네 몸을 받을 테니까.... 괜찮아. 잘 해 줄게!"  
"시... 싫어! 기분 나빠! 오지 마! 오지마!!"  
그렇게 아스모데우스(스피카)의 몸은 노이즈가 들어간 것처럼 사라진다.  
그리고 다음 순간, 도로시의 몸이 쿵 하고 발작한다.

"... 하... 하하... 이게 도로시의 몸... 너무 기분 좋아..."  
"아햏, 내가 도로시를 얻었어! 아하하하!"

도로시, 아니, 아스모데우스가 PC 전원에게 말을 건다.

"... 자... 일단은..."  
"있지, 사라."

사라가 움찔 하며 PC 2 뒤로 숨는다.

"...당신은 나와의 계약을 어기고 PC 2를 좋아하게 되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건 필요 없지?"

아스모데우스는 마법을 발동하더니 이공간에서 작은 병 같은 것을 꺼낸다.  
그 작은 병 안에는 작은 벌레 두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었어.

"...안 돼!! 싫어!! 엄마!!아빠!! 그만 뒤!!"  
"싫~어. 안 그만 둘 건데~. 영광으로 생각 해. 처음으로 이 신체의 마력을 시험하는 데 당신의 부모님을 찢더미로 만들어 보여줄게."

그러자 아스모데우스가 대량의 마나가 분출한다.

"싫어... 싫어! 그만해! 그만해!! 안돼에에에에!!!"  
싫더니 갑자기 마나의 공급이 멈춘다.

*이쯤에서 Stellarium을 틀면 어울립니다.*

"...어... 뭐...누구지...? 내 안에..."  
"도로시야. 도로시가 방해해서... 쓸데없이. 도로시. 당신의 정신은 내 그릇 안이야. 당장 기강을 바로..."  
"어...!?...아니야...이건... 누구...? 이 감정은 도대체...?"

스피카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PC 1. 나, 꿈이 있어. 꼭 이루고 싶은 꿈이."  
"당신을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해지고 싶어."  
"그러니까 기다려 줘. PC 1."  
"... [데몬즈 타임]"

갑자기 아스모데우스가 머리를 감싸고 괴로워하더니 눈부신 빛이 그를 감싼다.  
거기에서 스피카가 분리된다. 실체로서 아스모데우스 앞에 서 있다.  
다만, 머리가 평소에 비해 매우 길고, 눈부신 오라를 두르고 있다.

"... 만나러 왔어. PC 1"  
PC 1을 보고, 환한 미소로 미소짓는 스피카.

"그럴 수가... 내 정신을 허구의 존재가 넘었다고? 그런 일... 있을 수 없어!!"  
"... 흥, 하지만 당신 혼자 빠져 나와봤자 도로시는 내 거니까!"

아스모데우스는 또 대량의 마나를 발산하고자 한다.

"싫어! 하지 마! 엄마! 아빠!"

거기에 사라가 뛰어들려고 한다.  
마나가 튕기려는 순간 아스모데우스를 향해 스피카가 손을 든다.

"쓸데 없는 짓 이야."

작은 병을 눈부신 빛이 감싸준다.

"...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신의 능력을 내가 뺏았어."  
"... 작은 병 속에 있던 두 사람의 의식은 원래의 몸으로 되돌렸어."  
"...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사라는 스피카를 향해 눈물을 흘린다.

"아... 고마워... 으..."

스피카는 사라에게 미소를 던진다.  
그리고, PC 1 쪽을 돌아본다.

"있지, PC 1. 나... 너를 지킬 수 있을 정도로 강해 진 걸까?"  
"나는... 그것을 증명하고 싶어."  
"... 같이 싸워주면 안 될까?"

아스모데우스는 격앙된 목소리로 작은 병을 내리친다.

"아, 으윽! 도로시는 내 거니까!! 당신들 따위에는 못 줘!! 이 익사 할 정도의 마력으로 당신들을 처죽일거야!!"

### <최종 전투: 아스모데우스 (도로시)>

덧붙여 이 전투에는 세컨드 레이어가 존재하고, 세컨드 레이어의 PC측 초기 배치 3x3칸의 가운데 칸엔 스피카가 존재한다. 스피카는 PC측의 아군으로 전투를 수행.

## 엔딩 페이지

---

## 장면 25 안녕 (PC 전원)

---

전투 종료 후, 아스모데우스는 도로시의 몸에서 분리되어 조각으로 변한다.

"내가... 지다니..."

"그래도, 도로시의 몸을 한 번이라도 맛볼 수 있었네... 다시 한 번 도로시를 얻어 내겠어."

조각은 부서지고 아스모데우스의 영혼은 어디론가 사라진다.

"...끝났네."

"있지, 나 PC 1보다 강했어."

"...후훗, 꿈이 이뤄졌네."

"다행이다, 마지막에 꿈을 이루게 되어서."

"저기 PC 1. 나 꿈 이룬 거 축하 해 줘."

"그리고... 나를 죽여줘."

"...나, 아스모데우스에서 분리될 때, 그의 힘의 절반을 빼앗았어."

"나도 이제 아스모우스의 일부와 같아."

"그래서... 나도 사라져야 아스모데우스의 커스 사건이 해결되어."

"커스에 감염된 사람은 낮지 않으면 2, 3년 안에 죽는대."

"...나 PC 1이 살아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날 죽여줘."

"좋아해. PC 1. 고마워."

연출은 자유롭게 해 주세요.

## 장면 26 PC 3 엔딩 (PC 3)

---

각자 알아서 해 주세요.

상정은 도로시 프롬 오즈와 이야기하는 장면.

## 장면 27 PC 2 엔딩 (PC 2)

---

각자 알아서 해 주세요.

상정은 사라와 이야기하는 장면.

## 장면 28 운명의 재회 (PC 1)

---

그 사건 다음 날, PC 1은 평소처럼 하베스트를 다닌다.

통학으로 하늘을 날고 있던 중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죄, 죄송합니다! 비켜주세요!!"

PC 1이 뒤를 돌아보니 빗자루를 타고 급하게 돌진해 온 소년과 부딪히고 만다.

"아이고...아, 미안해요!"

갈색 단발에 빨간 실크햇을 쓴 여자 아이. PC 1는 그를 본 기억이 있다.

"아, PC 1! 안녕~!!"

"어? 무슨 일이야? 그렇게 어벙한 얼굴을 다 하고."

“에엥? 사라지진 않아! 그때 포옹하고 키스하고 앞으로도 같이 있자고 청혼 약속도 했는데. 잊어버렸어!?”

“후훗, 아무튼 가자. 빨리 가지 않으면 수업 늦어버려!”

“오늘부터 나, 하베스트에 정식 입학하니까. 그리고, PC 1의 수업의 페어를 사라로부터 탈환하는 거야!”

“앞으로 잘 부탁해. PC 1.”

벚꽃나무를 배경으로 그는 웃는 얼굴로 PC 1을 돌아보았다.

## 장면 29 흑막 (마스터 장면)

---

루이즈의 작업실에 루이즈와 한 명의 소년이 있다.

방의 전등은 켜지지 않았지만, 밖의 달빛이 방안을 눈부시게 비추고 있다.

루이즈의 손에는 아스모데우스 조각이 쥐어져 있다.

“...당신의 작전대로야. 좋은 걸 봤어. 코토리.”

“협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루이즈.”

“다시 보면 꽤 공들인 작전이었지. 네 부탁이니까 해 준 거야.”

“후후후. 완벽해요. 마지막으로 그들의 기억도 바꾼 거죠?”

“그래, 아스모데우스 조각은 망가졌다. 그 기억을 심어줬어. 이 책도. 도로시는 기억을 바꿀 수 없지만... 뭐, 별 문제는 없잖아. 하지만 커스 사건은 어떻게 할 생각이야?”

“어, 그거 몰라요? 일곱의 대죄 조각을 몸에 넣으면 그 커스만큼은 자유롭게 제어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러고 보니. 아스타로트도 그랬지. 그럼 나머지는 바라는 대로, 당신에게 이 아스모데우스의 힘을 줄게.”

그렇게 아스모데우스 조각이 전달된다.

그는 손에 든 페스트 의사 가면 뒷면에 난 구멍에 그 조각을 박아 가면을 쓴다.

“후훗. 이제 또 한 걸음 꿈에 가까워졌네요.”

---

## 에너미 데이터

---

[스프레드 시트 링크](#)